백화점, 코로나 장기화에 '온라인 문센' 활짝

롯데百 광주점, 유홍준·오은영 등 유튜브 랜선강좌
신세계 "인플루언서 특강까지 150개 맞춤 강좌 개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온라인 문화센터'를 활짝 열었다.

12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문화센터 가을학기에 처음으로 '유튜브 강연'을 개설하는 등 랜선강좌를 강화했다.

먼저, 10월12일 오후 7시-8시30분 '유홍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전통'을 선보인다.

강연에서 유홍준 교수는 가을 밤 아름다운 국악 연주와 함께 한국의 집 야외 중정에서 건축, 백자, 청자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얘기한다.

또 10월30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는 오은영 박사가 '현실 밀착형 육아 처방전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주제로 간결하고 화내지 않는 부모의 말을 통해 자존감 높고 자기 주도성이 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현실 육아 처방전을 공유한다.

이어 11월6일 오후 1-2시에는 골프여제 박세리가 '리치언니 박세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 강연을 펼친다. 박세리는 해당 강연에서 골프는 물론 예능, 사업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 후회 없는 도전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법 등을 얘기한다.

각 유튜브 강연 수강료는 3천원이다.

신세계백화점도 시간과 장소에 큰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을 살려 '신세계 온 아카데미'에 일대일 맞춤형 수업부터 유명 인플루언서 특강, 취미 강좌까지 150여개의 온라인 전용 강좌를 개설하고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수강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강좌에는 개인별 취향과 특성, 학습 수준을 고려한 일대일 온라인 강좌가 처음으로 개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대일 강좌는 맞춤형 수업을 통해 강좌의 질을 높이고 수강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반려견의 문제행동 상담, 보컬 트레이닝, 자동차 튜닝 수업이 대표적이다.

반려견 훈련사 견생연구소 애오 김충수 대표는 반려견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해 건강한 반려 생활을 돕는 행동교정 강좌를 펼친다. 도그 시그널을 통한 건강관리 홈케어, 펫 푸드, 재난대비 방법에 대한 수업도 진행된다.

자동차 튜닝 강좌는 로드스태프 튜닝 전문 크루가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법 및 튜닝에 대해 1:1 상담해 준다.

한국레코딩 뮤지션협회 김동원 이사는 가요, 팝 등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어디서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나만의 애창곡을 선택해 손쉽게 가르칠 예정이다.

신사임당(주언규), 송길영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이야기를 담은 온라인 특강도 마련됐다.

신사임당은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패 경험담부터 꼭 해야 할, 꼭 하지 말아야 노하우를 공유한다. 빅데이터 전문가 송길영 박사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보고 미래를 전망하는 빅데이터' 강좌를 선보인다.

메타버스 강좌도 선보인다. 제페토 크리에이터 장유주 강사는 메타버스 개념과 대표 서비스를 소개하고 콘텐츠 실습 등을 진행한다.

향후 신세계백화점은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Art & Science) 6층에 위치한 넥스페리움과 연계한 온라인 과학 수업도 개설할 예정이다. 매년 CES에 출품된 신기술과 인기 제품을 초·중등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하고 1:1 맞춤으로 실습을 통한 라이브 실험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그동안 10개 정도의 온라인 문화센터 수업을 시범 운영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확대했다"며 "1:1 프라이빗 상담 등 뉴노멀 시대에 맞춘 강좌를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롯데백화점 YouTube 랜선 강좌

'유홍준 교수가 이야기하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 전통'
10월12일 오후 7시-8시30분

'오은영 박사의 현실 밀착형 육아 처방전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10월30일 오전 11시-12시

'리치언니 박세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도전을 인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법'
11월6일 오후 1-2시

'홈술' 등 영향…명절 주류시장 '양주 전성시대'

지난 설 양주 매출 소주 앞질러
추석 선물세트 예약서도 38% ↑

코로나19가 명절 주류 소비 트렌드도 바꾸고 있다. 홈술 문화 및 비대면 분위기 확산 속에서 MZ세대의 '하이볼' 선호현상에 따라 지난 설 명절 양주 매출이 처음으로 소주 매출을 앞질렀다. 사진은 이마트 추석 양주 선물세트 코너에서 고객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명절 주류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보통 설·추석같은 명절은 온 가족이 모이는 날로, 어른들이 즐겨먹는 소주·맥주 등이 주로 판매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홈술 문화 및 비대면 명절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올해 명절 기간에는 양주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일 이마트에 따르면 설 명절이 있었던 지난 2월 광주를 비롯한 전국 이마트의 양주 매출이 224% 증가해 처음으로 소주 매출을 앞질렀다.

주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추석 당시 양주는 13.5%, 소주는 15.6%로 소주가 우위였지만 올해 2월에는 양주 16.2%, 소주 15.2%로 전세가 역전됐다.

일반적으로 양주는 가격이 비싸고 도수가 높기 때문에 매출 변화가 큰 품목이 아니나 양주에 음료를 타서 먹는 '하이볼'이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만 31만건이 넘는 등 양주가 M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올해 들어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실제 양주를 구매하는 연령층도 젊어졌다. 지난 2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고객 연령층 중 20-30대의 양주 구매 비중이 52.2%로, 전년 동기(43.4%) 대비 8.8%가량 증가했다.

이마트는 이같은 양주 매출 증가세를 코로나19로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술' 문화가 자리잡은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류를 즐기기 위해 양주를 마시기 시작했고 외식으로 먹던 고도주가 급부상한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1-8월 이마트 양주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4.6% 신장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위스키가 93.7%라는 고신장을 기록했다. 양주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예약 기간 양주 매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38%가량 신장했다.

이에 이마트는 올해 추석 발렌타인 싱글몰트 12-15년산 3종, 탈리스커 10년, 싱글톤, 발베니 26년, 짐빔 버번, 와일드터키 버번 8년 등을 비롯해 200여종의 양주를 판매중이다.

명용진 이마트 양주 바이어는 "중년층의 전유물이었던 양주가 하이볼 등 본인만의 이색적인 칵테일을 선호하는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전 세대 고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양주를 선보일 것"라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한전 '전력설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1천곳…안전사회 구현·추석 연휴 안정적 전력공급 위해

한국전력이 안전 사회 구현과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특별 점검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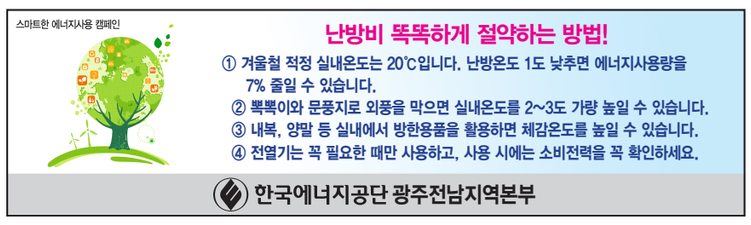
12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설비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국민 안전 사회 구현을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46일간 '전력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전력분야 안전대진단'은 고장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핵심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전력설비 점검을 시행해 안전사고와 정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한전은 안전대진단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민관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대상은 345kV 변전소 4개소를 비롯해 높이 5m 이상 길이 100m 이상의 대형 옹벽 1개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변전소 건물 1개소, 25년 경과 200m 이상 송배전 전력구 8개소 등 14개 취약 시설이다.

한전은 또 자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시설(접종센터·선별진료소)과 대규모 공사 현장(철거), 붕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옹벽, 정전에 민감한 업종이 입주한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급변전소 등 핵심 시설 1천여곳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설비 점검으로 정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전력설비 복구체제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현빈 한전 경영지원부사장은 지난 8일 충남 청양·예산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위험 요인을 점검한 후 현장 관계자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 점검을 당부했다. /박은성 기자